문제중심학습환경에서
예비교사들의 자기효능감 변화 연구
장경원(경기대학교)

<목론 초록>
자기효능감은 효과적으로 어떠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개인의 자신감 수준이다. 경쟁력있는 과제수행을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필요하며, 교사에게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문제중심학습은 예비교사의 자기효능감을 길러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중심학습 환경에서 예비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변화하고 무엇이 변화되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예비교사들의 일반 자기효능감과 특수 자기효능감은 PBL의 경험을 진행함에 따라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예비교사들이 진술한 자기효능감의 변화된 내용은 교수방법, 교사자질, 전공지식, 문제해결능력이었다. 문제중심학습 경험 전에도 몇몇 교육대학원 학생들은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진술하였는데, 학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을 토대로 자신감을 표현하거나 그에 따라 취할 것 같다는 언급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거나 막연한 자신감은 문제중심학습 경험 후에 구체적이고 정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한 자신감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문제중심학습은 예비교사들의 지식,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같은 태도 측면에서도 효과를 갖고 있어서 후에 이들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교수학습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문제중심학습, 예비교사교육, 교사교육방법, 자기효능감, 교사효능감

I. 서론

공교육의 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예비교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은 교사의 평생학습과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배운 것과 교실에서 일어나는 상황 간의 볼일치가 있는데, 이것은 교사로 하여금 교육적 연구와 이론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예비교사교육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은 교육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현실에서 예비교사들에게 교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실체적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학적 방법으로서 문제중심학습 방법이 소개되었고, 그 동안 이에 기초하여 학습자들의 지식과 기술 측면에서 이러한 학습효과가 있었는지(이상구, 설현국, 황신일, 2005; Bridges & Hallinger, 1992) 문제중심학습을 운영하기 위해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해 연구가 되었다(장정아, 2005; Malopinsky, Kirkley, Stein